세상 천국 지옥 순으로 좋다(?)

(마태복음 13:10~17)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 천국 지옥 순으로 좋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 천국 지옥 순으로 좋다'
이 제목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천국이 지옥보다는 낫지만 세상보다는 못하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며 길가 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는데 본문 10~17절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옥토 같은 마음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블레(παραβολή)로써 "~옆으로 던지다, ~옆에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의미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라는 말을 한다면 상대는 "뭐라도 먹을까?"라고 음식에 대한 내용으로 호응합니다. 그러나 "네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즉 언어 그 자체보다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천국의 내용을 비유라는 그릇에 담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존재를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그릇에 천국을 담아 제시해주셨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천국을 향해 있는 마음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과 귀가 천국을 향해있지 않다면 비유라는 그릇만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지 비유에 담긴 천국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큰 무리를 향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누구나 이 비유를 들을 수는 있으나 마음이 천국을 향한 자들만이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도 이를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석서를 보면 이를 두고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 천상회의에서 언급되는 일들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의 맥락과 연관해서는 깨달음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미 10장부터 12장에 걸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며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조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비밀이라 하신 이유는 가까이 온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비유를 같이 듣지만 이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들도 천국의 존재를 믿었으며, 모든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에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천국의 존재는 새삼스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서 천국이 현실로써 체감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곧 천국을 체감함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음을 통해 세상을 체감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마음에서 몸보다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과 귀로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나 스웨덴은 사실로써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도나 스웨덴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기에 저의 현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로써 존재하지만 마음이 향하지 못한다면 천국은 체감할 수 없고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비밀이 허락되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에서 천국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제자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행 기차와도 같아서 예수님께 마음을 태우면 반드시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천국을 체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을 경험한 뒤에야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의 '너희'란 하늘을 그리워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그들'이란 마음이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20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서기관으로써 성공하는 상황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알려질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적인 원칙처럼 이해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돈을 언급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앞선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에 넉넉하게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비밀을 말씀하셔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도 입에 넣지 않으면 결코 음식 맛을 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먹고 마시면서 체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체감한다는 것은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체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것이 곧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돈을 가지면 기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기쁨과 무관하다고 믿는다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통해 기뻐하고자 하는 자들은 적었습니다. 돈을 붙잡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고 선민의 집단이 주어져 있고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고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또한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면 주어진 모든 것들의 의미는 상실됩니다.
이처럼 '무릇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인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연인과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는 연합의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그리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허락되었습니다. 천국을 그리워해서 마음이 하늘을 향한 사람들은 '무릇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천국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조건이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핵심은 바로 하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한편 14~15절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말이 참 낯섭니다. 고쳐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늘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침 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이 제시되자 보고 듣기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직역해보자면 마음이 비대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의 말씀을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지불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바람에 가족에게 건강 문제에 돈 문제에 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비대해졌다는 것은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세상에 지불할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그리워하지 못하는 것은 땅을 그만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불할 마음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모든 조건의 의미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그리워하고, 애인이 안 보일 때에는 애인을 그리워할 줄은 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는데도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좋음을 가르쳐주었는데도 그리워하지 않으니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그리워하고 건강을 그리워하고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삼아 부릅니다.

이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이러한 완악한 마음에는 천국의 비밀 또한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보이고 들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체감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1초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모으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승진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하루빨리 승진하고자 애쓰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일류대학을 그리워하는 학생이 한 번에 합격하고자 애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리워서 한 시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야 마지못해 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는데 죽어서 갈 곳 중에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은 것 같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천국을 선택할 뿐 살면서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을 믿지도 않고 기독교의 천국에 갈 것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어차피 가야 될 곳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면 천국을 가야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도폭발과 같은 행사를 할 때에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은 이러한 심리를 잘 드러내줍니다. 안 죽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죽는다면 천국에는 가야할 것 아니냐는 태도가 은연중에 묻어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고 싶어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텐데 그래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라고 묻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은 곳으로써의 천국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서먹하던 남녀가 자꾸 만나다보니 점점 친해져서 매일 보고 싶어 결혼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칭 기독교인들에게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상태에서 비유를 통해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차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 완전히 제거된 채로 신앙생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주례에서는 으레 온갖 좋은 말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자 한다면 배우자를 놔두고서라도 가고 싶은 곳이 천국임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당일 날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배우자를 놔두고 가야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결혼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통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그 열망이 강할수록 가정은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천국을 그리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문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문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움을 가질 때에 땅의 문제 또한 해결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하여 체감하고 한 시라도 빨리 이 땅의 삶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로 천국 복음을 들은 옥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에 익숙해져야만 하고 천국을 향하여 그리움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움 안에서 천국을 가지고 그리움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는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체감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이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체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키워가며 그 그리움에 따른 천국의 체감 정도를 높여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라도 이 땅을 빨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